통일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32호 【루계 제2762호】

주체112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음력 6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영웅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한 전승축전

—열병광장에서 빛나던 《승리》상을 보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들은 끝났지만 그것이 준 충격과 감동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고있다.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이번 열병식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승리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모은것은 미제에게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안기고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영웅성,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상징하는 《승리》상이였다.

이 《승리》상이 빛을 뿌리는 속에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앞으로는 공화국의 승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도도히 굽이쳐 흘러갔다.

《승리》상은 단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위훈으로만 빛나는것이 아니였다.

3년간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제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안긴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전후 70년간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온 미국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이 땅에 위대한 승리와 기적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온것은 얼마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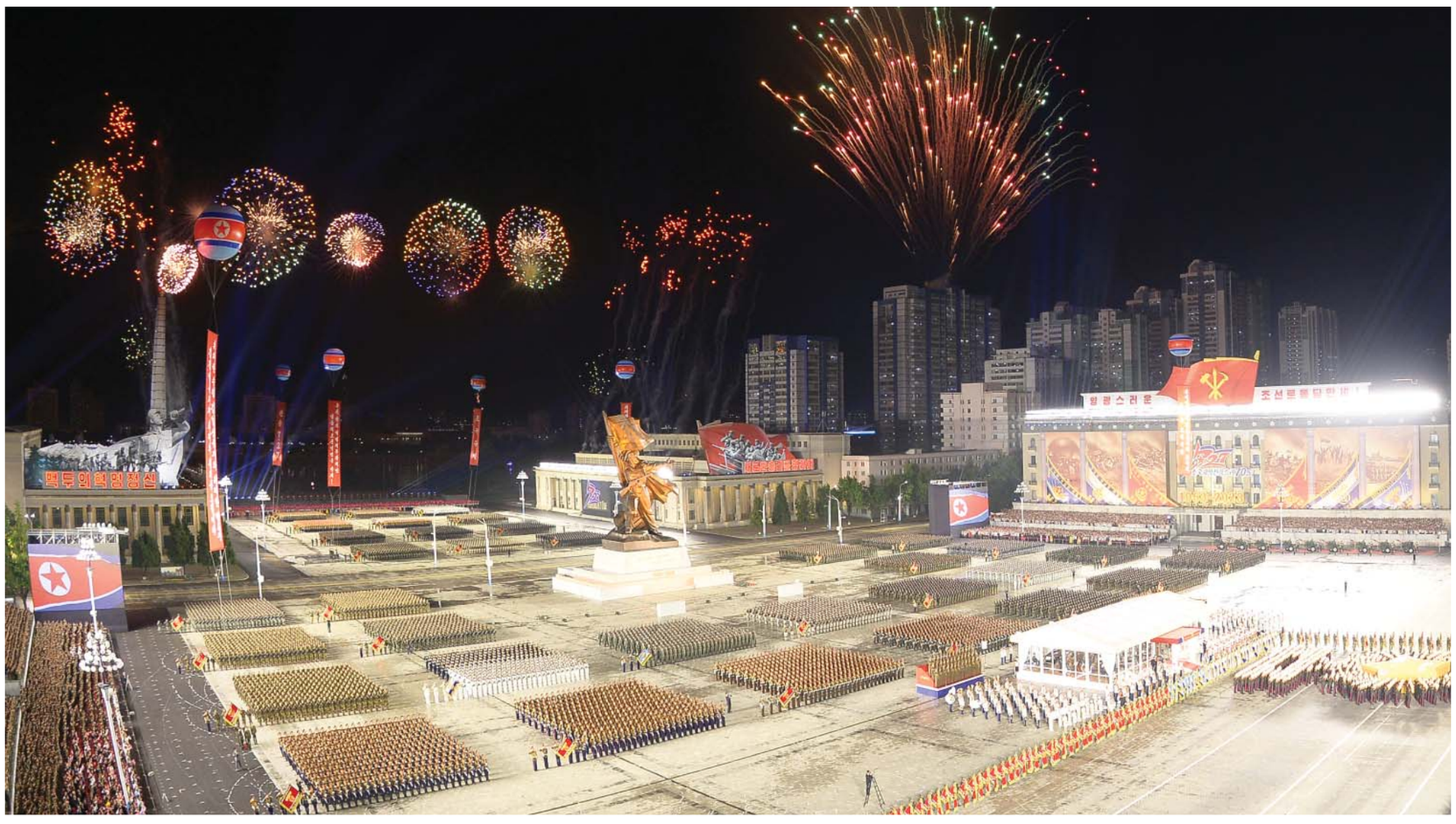
70년전 전승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에서 인민군군인들이 보총과 기관단총을 들고 승리의 열병식을 했다면 오늘에 와서는 절대적 힘, 초강력을 과시하며 열병식광장을 지나갔다.

하기에 열병식을 본 경축대표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은 저마다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정말 힘이 난다. 최강의 군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을 누구도 다칠수 없게 되였다.》, 《강대한 국가의 공민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속에 차넘친다.》, 《이 위대한 조국을 빛내이기 위해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겠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는 조선의 승리, 그것은 다름아닌 절세위인들께서 공화국인민에게 안겨주신것이다.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높이 모시여 백수십차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던 미국을 거꾸러뜨리고 전승의 축포를 쏴올린 조선이다.



지난 조선전쟁은 령토와 인구, 경제력, 군사장비 등 모든 면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너무도 대비가 되지 않는 힘겨운 싸움이였다.

미제는 공화국을 단시일내에 병탄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고 모든 인적, 물적수단을 다 동원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가 있어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될수 있었다.

조선의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빛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종말》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사면팔방으로 달려들던 준엄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최악의 시련을 격파하며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으로 공화국을 행성의 중심에 우뚝 올려세워주시였다.

오늘 공화국은 희세의 천출명장,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정의와 평화의 보루, 초대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공화국인민 누구나가 심장으로 깊이 체득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준비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공화국의 국방력을 누구도 넘보거나 견줄수 없는 최강의것으로 강화하시였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서 단호하고도 선제적인 실천행동으로 미제에게 련속참패를 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활한 지략과 비범한 령군술에 의하여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한 것으로 더욱 굳게 자리잡게 되였다.

하기에 전승 7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 또 웨친것이다.

열병광장주석단에 서시여 최정예부대,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사열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내고 이 행성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실 강철의 의지가 력력히 빛발치였다.

《승리》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영광찬 승리의 력사가 앞으로 700년, 7 000년으로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라는것을 선언하고있다.

정녕 《승리》상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 공화국의 상징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백광철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총련중앙강연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7월 26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국장들과 일군들이 강연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록화편집물 《승리는 대를 이어—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를 감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였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영웅신화를 탄생시킨 자랑찬 승리의 7.27이 있다는데 대해 감명깊게 돌이켜보았다.

참가자들은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을 강력한 힘으로 단호히 제압하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강령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애국적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해 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총련 오사까부본부, 효고현본부와 지부, 분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에서도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7월 27일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 총령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 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보고회가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비전임일군들,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녀성협회 회원들, 료녕지구협회산하 지부장들, 심양시지부 공민들,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과 지원군로병들이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은 보고에서 조선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침략자미제를 처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수호함으로써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오늘 공화국의 백승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자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떨쳐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좌담회와 동포예술인들의 공연, 연회가 있었다.

한편 7월 26일 총련합회회의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올리는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목단강지구협회, 중남지구협회 상해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들이 있었다.

국제고통련 토론회 진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국제고통련)의 주최로 7월 27일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김칠성 국제고통련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로씨야고통련, 우즈베끼스딴고통련, 끼르기즈스딴고통련 일군들, 로씨야과학원 중국 및 현대아시아연구소 조선연구쎈터 상급연구사가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대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책임자, 주체사상연구조직 등 정당, 사회단체, 학계, 친선협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여 대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7.27은 조선인민이 세계제패를 꿈꾸던 미제를 타승하고 항복서를 받아낸 날이라고 하면서 이 력사적승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였으며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덤벼들수 없게 된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영웅적조선인민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로씨야고통련과 동포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전승 70돐 경축 대공연

평양시민들의 절찬속에 련일 진행

위대한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예인 전승절을 청사에 특기할 대축전, 전인민적인 명절로 성대히 기념한 가슴뿌듯한 자부가 온 나라에 넘치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이 수도 평양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장소는 전쟁을 이긴 불굴의 3년과 더불어 장장 70성상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숨결을 지켜주고 공화국의 강대함과 불패성을 만방에 떨친 불멸할 영웅정신, 우리 조국의 영광넘친 백승사가 거세차게 맥박치는 공연을 보기 위하여 모여온 시민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전승의 그날에 분출되였던 환희와 격정이런듯 무대배경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글발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가 정중히 모셔지고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하나가 되여 부르는 승리의 찬가 《우리의 7.27》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출연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위대한 승리전통,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과 필승의 기상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이였다.

세계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시여 시대와 력사, 조국과 인류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승리만을 떨치는 영웅조선, 영웅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숭고한 경의가 녀성중창과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전화의 나날 가렬한 격전장마다에서 침략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 화선용사들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이 맥박치는 전시가요들이 련이어 무대에 올랐다.

전승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무대화면에 모셔지고 우렁우렁하신 육성록음이 울리자 장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희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으로 뜨겁게 설레이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미증유의 전승을 안아오고 피로써 지켜낸 국호와 국기의 권위와 힘을 누리에 떨쳐온 선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혼성중창과 합창 《근위부대 자랑가》, 녀성독창과 합창 《나의 한생》, 무용과 교예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를 비롯한 종목들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출연자들은 반제자주의 한 전호에서 맺어지고 공동의 위업실현에서 공고화된 조중, 조로인민의 친선단결과 전투적우의는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중국과 로씨야노래련곡들에 담았다.

존엄은 오로지 강자의것, 평화도 오로지 강국의것인 오늘의 세계에서 대를 이어가는 백승은 더욱 값지고 위대한것임을 격조높이 토로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을 영원한 전승국, 불패의 최강국으로 세기우에 떠올릴 전인민적사상감정을 세차게 분출시킨 설화시 《승리는 대를 이어》는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7.27의 기적이 새겨주는 진리를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인민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대공연은 시민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청춘의 기상과 용맹으로 전진하는 조선

세계에 존엄떨치는 공화국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화폭이 있다.

그것은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며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해 사회가 들끓고 약동하는 나라.

공화국의 이 경이적인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끌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 *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장.

언제인가 백열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이곳 건설장으로 경제선동을 나왔던 한 처녀가 한 말이 있다.

《여기 서포전역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춘이라면 누구나 달려오는 곳이 아닙니까.》

옳은 말이다.

힘과 젊음이 넘쳐나는 구리빛얼굴의 청년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남자들 못지 않은 일솜씨를 과시하는 처녀돌격대원들, 이마에 내돋는 땀방울을 연신 훔치며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지원자들속에는 청년미술가, 청년로동자, 청년대학생들도 많다.

나이와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라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온 청년들, 그들의 슬기와 용맹을 주추로 하여 하루가 몰라보게 변모되여가는 서포전역의 희한한 번혁적실체들을 가슴후덥게 안아보며 누구나 새기는것은 미덥고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진 공화국의 신심넘친 오늘과 더 좋을 래일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다.

이 행성을 둘러보면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법칙, 퇴폐적인 생활양식에 쩌들어 자기밖에 모르는 속물로, 정신적불구자로, 범죄자로 전락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조선청년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남조선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신적불구자, 타락과 방종에 물젖은 패륜아, 돈과 물건의 노예, 폭력을 일종의 유희, 도락으로 여기는 범죄자, 비관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진 타락분자, 자살자들로 굴러떨어져 사회적비난을 받고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풍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퇴폐적인 사상문화가 범람하는 남조선사회가 산생시킨 비극적인 청년실태이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이라는 부름은 하나이지만 이 땅에서는 청춘의 젊음과 기상으로 사회가 들끓고 시대가 전진하고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강동온실농장건설장을 찾아가보아도 그렇고 수천척지하막장과 사회주의전야, 두메산골과 어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기적과 위훈창조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조국을 위한 길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불같은 일념으로 탄전으로, 농장으로,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달려나가는 미덥고 끌끌한 청년들의 대오는 그 얼마이며 아름다운 미덕과 미풍으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소행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것인가.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심중한 우려를 자아내는 범죄와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불안정을 낳는 기본요소로 간주되고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의 가장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사상정신적으로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하며 단결력에 있어서 뛰여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있다. 정말 조선이 부럽다.》

청년들이 시대의 꽃으로,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떨치는 공화국의 현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시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락관과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청년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제일로 믿고 사랑해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란 곧 미래이다, 청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조국의 앞날이 좌우되고 혁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는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년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태도와 립장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애국청년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다.

지금도 청년운동사적관을 찾는 사람들은 뜻깊은 글발앞에서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한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 26》

정녕 그것은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열렬한 기대의 표시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이였다.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화국의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선봉대, 돌격대로 억세게 키우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예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청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십만자루, 백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천만가지 일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청년동맹 일군들을 키우는 문제로부터 청년들을 교양하는 문제, 청년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선봉에 서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오늘도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들을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잊을수 없다.

발전소건설장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청년들이 새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믿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늘같은 그 은정을 생명선으로, 피줄기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당에서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태양이 없는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 공화국의 청년들의 값높은 삶과 위훈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사업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그 대책들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청년운동사적관건설문제며 체불체육단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청년전위》, 《새날》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잡지, 교양자료발행에 이르기까지 청년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하많은 사연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훌륭히 꾸려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길이길이 전해가도록 하신 사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강위력한 건설부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살려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 청년중앙예술선전대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도록 하신 사연…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공화국의 청년들의 삶을 최고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스승,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떠받들리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공화국 애국청년대군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선청년운동은 최전성기를 영원히 구가할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강국의 지도자

미래를 가꾸어가시는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미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더더욱 강성하고 휘황찬란한 래일을 가꾸어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공화국에서는 미래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미래사랑. 이 말을 외워보는 공화국인민 누구나 이야기하군 한다.

우리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고와하신다고,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타고나시여 위대한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어버이의 진정의 분출이라고.

력사에는 아이들을 사랑한 위인들에 대한 미담들이 많이도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아이들과 그렇게도 허물없이 어울리시며 꼬마《의사》의 《진찰》까지 받으시고 최전연 섬마을의 아기의 첫돌까지 잊지 않으시고 생일선물을 안고 가시는분, 빨간별을 제일 좋아하는 동심까지 헤아리시고 좋은 일을 찾아한 총각애에게 빨간별 다섯개가 그려진 회답편지도 보내주시고 잠자는 아기의 포단을 꽁꽁 여며주시며 잘 자거라 하고 다심하게 속삭여도 주시는 그런 뜨겁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결코 위인의 고매한 천품, 고결한 인간미에 대한 전설만이 아니다.

기와 더불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련된 참다운 미래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천만년 꿋꿋이 이어나가실 불같은 의지를 안으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은 곧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공화국의 전력사에 관통되여있는것이 《후대들을 위하여!》라는 참다운 후대관이다.

만고불멸의 저서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

래를 안고사시는 절세위인의 위인세계,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비껴있다.

아이들은 결코 애어린 싹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바로 국가와 민족의 래일이 비껴있다.

무릇 강국이란 현존하는 국력의 종합적지표로 평가되군 한다. 하지만 강성한 국력을 뽐내며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도 후대들을 튼튼히 준비시키지 못한탓에 스스로 맥없이 스러져버린 사실들을 력사는 수없이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은 곧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공화국의 전력사에 관통되여있는것이 《후대들을 위하여!》라는 참다운 후대관이다.

만고불멸의 저서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련된 참다운 미래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천만년 꿋꿋이 이어나가실 불같은 의지를 안으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신것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자나깨나 미래를 안고사시는 절세위인의 위인세계,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비껴있다.

아이들은 결코 애어린 싹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바로 국가와 민족의 래일이 비껴있다.

무릇 강국이란 현존하는 국력의 종합적지표로 평가되군 한다. 하지만 강성한 국력을 뽐내며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도 후대들을 튼튼히 준비시키지 못한탓에 스스로 맥없이 스러져버린 사실들을 력사는 수없이 전하고있다.

결국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 비낀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강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는 척도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는 그대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공화국특유의 전진방식이고 복잡다단한 오늘의 형세속에서도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만년번영의 설계도를 펼치고 그를 확고히 담보해가시는 절세위인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다.

그렇게 가꿔지고 지켜지는 공화국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앞에서 세상사람들 누구나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며 조선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고 저마다 례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미래사랑은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심과 락관의 분출이며 조국의 만년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우는 가장 위대한 헌신적복무의 증례이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 오늘의 난관을 인내하고 돌파해나가자고 해도 힘에 부친 엄혹한 정세하에서도 더더욱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품을 넣는다는것은 승리에 대한 신심, 휘황한 래일에 대한 락관이 없이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을 혁명의 래일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벌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공화국을 선진교육국으로 건설

절세의인의 보람과 긍지

하기 위한 사업을 진두지휘하시였다.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더욱 뜨거워만 지는 어버이의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당과 국가의 중대정책들이 토의되는 중요회의들에서 아이들을 위한 중대조치들도 련이어 취해주시고 온 나라 아이들의 대회합에 몸소 참가하시여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서한도 보내주신 어버이, 새해의 첫아침도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맞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미래사랑은 정녕 세인이 일찌기 알지 못하였던 숭고하고 열렬한것이다.

그러하기에 창조를 해도 만년대계의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며 힘을 갖춰도 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강대한 절대적힘으로 갖추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험천만한 화선길을 수없이 헤치시고 이 나라의 높은 령, 험한 길은 앞장서 다걸으시며 불철주야의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육아정책집행정형을 단위별로, 내용별로 우결함을 정확히 찾아 총화하고 젖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래일은 나날이 더 눈부시게 설계되고 더 굳건히 담보될것이며 세계는 쇠퇴나 답보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모습을 끝없는 경탄속에 보게 될것이다.

리 은 별

오늘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현대적인 새 공장, 새 마을, 새 거리들이 앞을 다투며 일떠서고있다.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것이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한다.

우리 멋쟁이공장,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라고.

받아안는 행복이 커갈수록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위인의 헌신과 로고가 어려와 눈시울 젖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밝은 웃음과 기쁨에서 가장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신다.

지난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면모가 완전히 일신된 야영소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였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후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긍지로 여기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만이 하실수 있는 심장의 토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해 일떠세운 현대적인 새 거리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진 라선땅을 돌아보실 때에도, 평양메기공장과 북변의 동해기슭 중평온실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사랑하는 인민들이 행복에 겨워할 모습을 그려보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혁명하는 멋을 느끼시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기에 언제 년사업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그 대책들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청년운동사적관건설문제며 체불체육단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청년전위》, 《새날》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잡지, 교양자료발행에 이르기까지 청년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하많은 사연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훌륭히 꾸려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길이길이 전해가도록 하신 사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강위력한 건설부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살려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 청년중앙예술선전대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도록 하신 사연…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공화국의 청년들의 삶을 최고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스승,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떠받들리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공화국 애국청년대군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선청년운동은 최전성기를 영원히 구가할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인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겨주시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쓰고살 걱정,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 등을 모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인민들, 마치 공기속에서 살면서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국가로부터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얼마나 더 큰지 알고있을가.

그 혜택가운데는 공화국인민들이 마음껏 마시고 쓰는 맑은 물도 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유정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언제인가 재령군읍에 위치한 어느 한 샘물공급소를 찾았던 기자에게 공급소의 한 봉사자가 한 말이 떠오른다.

《집집마다 맑은 수도물이 흘러드는데 이렇게 샘물까지 공급받으니 물에서 물을 골라마시는 셈이지요.》

물에서 물을 골라마시는 인민, 이 땅에 흐르는 너무도 평범하고 례사로운 생활의 한 풍경에서 이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다.

물!

물이 없으면 사람은 한시도 살수 없다. 사람의 몸의 절반이상은 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이 행성을 둘러보면 심각한 먹는물부족으로 고통과 불행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0명당 1명이상이 먹는물부족을 느끼고 36억명이 년중 한달 물고생을 하고있으며 오염된 물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 해마다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

물자원부족은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져지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딜 가나 맑은 물이 차넘친다.

국가의 부담으로 각 지역의 수원지, 배수지들에서 위생학적으로 처리되고 소독을 거친 깨끗한 물이 집집의 수도마다 쏟아져나오지만 사람들은 물값이라는 말을 모르며 산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샘물공급소들이 생겨나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달산샘물, 신덕샘물, 천수동샘물, 마식령샘물 등 미처 다 꼽지 못할 장수샘물들이 인민들에게 공급되고있으며 광물질함량이 많으면서도 그 맛이 서로 다른 강서약수, 옥류약수, 옥호동약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약수들이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통적인 금강약돌음료생산에 첨단음료수처리기술의 하나인 소분자수제조기술과 자화기술 등을 도입하여 물맛과 효능을 더욱 높인 새로운 금강약돌음료들이 매대들에 넘쳐나 건강과 장수를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 나날이 커가고있으니 이는 자연이 선사한 혜택인가, 세월이 가져다준 행운인가.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워온 조선이다.

허나 나라없던 수난의 그 세월 왜놈의 학정에 물고생까지 겹쳐 등이 휘게 물지게를 지고나르고, 한모금의 맑은 물이 없어 병들고 쓰러져가던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눈물겨운 정상이였거니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인민이 물고생을 모르며 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건만 자기 고장을 찾아주신 그이께 마타리물밖에 올릴수 없어 송구스러워하는 농민에게 임금은 인민이고 자신은 신하라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

그때부터였다. 인민이 주인된 세상에서 물고생, 물걱정이라는 말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그어주신 평남관개 5 000리의 물길선을 따라 연풍호의 생명수가 출렁이며 흘러들어 대대로 풀지 못했던 물에 대한 소원이 풀리던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행복에 웃고 고마움에 울던 열두삼천리벌사람들이다.

몸소 동흥산에 오르시여 대공업도시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던 그날 성천강물을 끌어올려 함흥시민들의 음료수를 전부다 수도로 보장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먹는물문제부터 먼저 대책해주신 그이, 흐르는 물까지도 인민을 위해 다 찾아내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여주신 수령님의 그 응심깊은 사랑속에 이르는 곳마다에 약수터가 생겨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료양소들이 일떠섰다.

인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은파호, 서흥호, 미림갑문, 봉화갑문을 비롯한 대인공저수지건설의 력사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창한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20리 날바다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서해갑문, 이때부터 수수천년 바다로만 흐르던 대동강이 대인공호수로 전변되여 대동강하류류역의 음료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경제적으로 아무리 큰 리익이 나는 일이라 해도 인민들에게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의하여 새 제련소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성천강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이게 되였고 황금으로 제방을 쌓는한이 있더라도 저수지공사를 꼭 하여야 한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신계곡산지구에 억년 마를줄 모르는 신곡저수지가 생겨나 집집의 수도마다 사랑의 생명수가 넘쳐흘렀다.

영영 잃을번하였던 유명한 강서약수가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게 된 전설같은 이야기, 오수덕의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먹는물 보장을 위해 800m나 되는 높은 덕지대에 국가의 많은 자금과 자재가 투자된 이야기…

어디서나 볼수 있는 례사로운 일이였던가. 그것은 오직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된 이 땅, 이 하늘아래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이다.

오늘도 인민사랑의 물줄기는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어오신 인민들이 무병장수의 기쁨속에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에게 샘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민들에게 먹는물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민성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시며 샘물관리법도 채택하도록 하시고 강서약수공장에 가시여서는 강서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에 풍부한 약수와 온천자원을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조이다.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그이이시기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쓰고사는 살림집부엌의 수도꼭지까지 틀어보시며 수질이 어떤가에 대하여 일일이 헤아려보신것이고 인민들에게 사시장철 마를줄 모르는 장수샘물을 안겨주시려 대성산샘물공장의 배치안과 설계안, 건설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며 그토록 로고와 심혈을 거듭하신것 아니겠는가.

물은 자기의 곬을 따라 흐른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리물길도 돌려세우고 천길땅속의 물까지도 보배로 만들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열화와 같은 사랑, 인민을 위함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늘같은 은덕에 의해 이 땅 어디서나 생명수가 넘쳐흐르고 물에서 물을 골라마시는 인민의 복된 삶이 있는것이다.

정순진

민족음식에 어린 다심한 손길 (2)

1년중 가장 덥다고 하는 삼복철이다.

뙤약볕이 지글지글 내려쪼이는 이 시기 음식으로는 시원한 랭면이 제격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것은 역시 단고기국을 비롯한 단고기료리들이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이열치열》이라 일러오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의 식생활풍습에는 삼복철에 땀을 철철 흘리며 뜨끈한 단고기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우리 나라 옛 문헌들에는 단고기와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약효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되여있다. 옛 기록에는 《단고기는 성질이 덥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을 조절하며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맑게 하며 머리, 무릎을 덥게 하여 아픔을 멎게 하고 기력을 증진시켜 양기를 돋군다.》라고 서술되여있다.

이런데로부터 민간에서는 삼복철에는 단고기를 먹어야 장수한다고 하였고 단고기국을 보신탕이라고 부르게 되였으며 《오뉴월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속담도 나오게 되였다.

이렇듯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삼복철 단고기국을 먹는 풍습은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민족의 향취를 더해주며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몸소 단고기국이라는 이름도 친히 지어주시고 여러가지 단고기료리를 만들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거리의 명당자리에 평양단고기집을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단고기료리는 삼복철 누구나 찾는 민족전통음식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언제인가 단고기료리방법을 소개하는 어느한 편집물을 주의깊게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고기국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의 음식문화이라고, 음식문화를 널리 소개하려면 료리방법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온전한 제법과 상식을 놓고 정확히 만들어 내보내야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료리방법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주체104(2015)년 7월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이 진행되던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을 조직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경연때마다 지방의 단고기료리수준이 평양시보다 떨어진다는것을 아시고 지방이라고 하여 단고기료리기술이 평양시보다 뒤떨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도소재지들에 단고기집을 잘 꾸리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료리기술을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을 소개할때 단고기의 유래와 특징, 료리방법을 잘 알려주도록 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분, 전국단고기료리경연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고기료리방법을 DVD다매체편집물로 만들어 보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해마다 특색있게 진행되는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이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단고기료리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다채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평양시안의 단고기국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들사이의 단고기료리경연을 조직하도록 하신 사실, 평양시에 단고기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하나 더 잘 꾸려 평양단고기집과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단고기료리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여주신 은정어린 조치, 평양단고기집에서 만든 단고기료리의 맛도 몸소 보아주시고 가공방법도 가르쳐주시던 다심한 손길…

이렇듯 뜨거운 인민사랑과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위인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단고기료리들은 조선민족의 명음식으로 만사람의 찬탄을 받고있다.

단고기국을 비롯한 단고기료리들을 맛본 수많은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은 《평양의 단고기는 조선민족음식의 전형이다.》, 《맛이 신기하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최고라고 평가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손길이 있어 공화국인민들은 민족음식들을 통하여 나날이 질어가는 민족의 향취를 한껏 느끼며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람홍색국기아래 희망의 꽃피워간다

—홍수경 조선장애자체육협회 부원과 나눈 대담—

기 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꿈과 재능을 꽃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수경: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며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찾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진행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에 발포하신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주체100(2011)년 8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희망을 실현시켜주며 장애자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여 장애자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신체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있는 장애자들이 체육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군들과 감독들은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장애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여 소중히 가꾸어주고있다.

어렸을 때 뜻밖의 일로 두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선수만 놓고보아도 그가 오늘과 같이 재능있는 탁구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군들은 그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기 위해 먼길을 찾아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대해 알려주면서 전문훈련지도를 받고 또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제경기에도 진출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현탁구선수의 가슴속에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불편한 자기를 손잡아 훈련장으로 이끌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며 따뜻이 돌봐주고 지혜와 힘을 합쳐준 협회의 일군, 감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생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협회에는 탁구와 바드민톤, 수영, 륙상, 활쏘기,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많다.

마음속고충과 아픔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이 위해주는 사랑과 정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희망을 꽃피울수 있게 하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기 자: 낳아준 부모도 미처 알지 못했고 지어 본인조차 포기할번했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주는 고마운 품이 있어 장애자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홍수경: 옳은 말이다.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국가의 혜택속에 장애자들이 일반사람들과 꼭같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도 적극 출전하고있다.

여러 국제경기에 참가한 우리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조선선수들이 높은 기술과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신진선수들이지만 인내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선수들을 키워낸 조선에 꼭 한번 가보고싶다며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김영록선수가 장애부분에 탁구채를 고정하고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을 때 그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본 어느한 나라의 감독은 김영록선수의 부모가 어떤 직위에 있는가고 우정 찾아와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두손이 없는 몸으로 세계적인 경기대회에 참가하였으니 많은 재부와 권력이 안받침되였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아버지는 안계시고 홀어머니마저 년로보장을 받고있다는 김영록선수의 대답에 그 감동은 그만 입을 딱 벌리였다.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의 손길아래 어제날 장애자체육선수였던 마유철도 나라의 첫 장애자감독으로 자라났으며 심승혁, 리국성을 비롯한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자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고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

꿈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꿈이 없이 어찌 인생을 론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세상 어느곳에 장애자들의 꿈까지 속속들이 헤아리고 아름답게 꽃펴주는 품이 있는가.

우리의 장애자체육선수들에게는 소중한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진정한 어머니품,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운 품이 있다.

하기에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장애자체육선수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진정을 터치고있다.

람홍색공화국기아래서 우리가 산다고, 우리의 국기를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앞으로도 우리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가슴속에 한점의 그늘도 없이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판이한 두 현실-

녀성존중, 녀성천시

꽃은 자기의 아름다운 색과 모양, 그윽한 향기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 생의 희열을 안겨준다.

만약 이 땅에 꽃이 없다면 인간생활은 얼마나 메마르고 무미건조하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사랑하며 아름답고 귀중하며 훌륭한것을 꽃에 비기기도 한다.

《녀성은 꽃이라네》, 이 노래는 공화국의 인민들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여기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고 행복을 꾸려가는 공화국의 녀성들에 대한 우리 시대의 뜨거운 긍정과 공감이 있으며 애국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서 남자들과 꼭같이 사회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나라의 당당한 주인들에 대한 더없는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반영되여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녀성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녀성들처럼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그처럼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녀성들은 없다. 녀성들을 위한 전문병원들과 공장과 농촌, 마을마다에 있는 탁아소들, 어린이들을 많이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사회적혜택,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온갖 조치 등은 녀성존중의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공화국이 걸어온 전 로정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이 자랑찬 년대들에 빛나는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가는 나라의 꽃으로 그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있다.

평범한 녀성들이 박사로,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는 또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시대의 전형으로, 영웅들로 자라났던가.

그들속에는 온 나라가 다 아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장장 문강순, 난치병을 앓고있던 학생을 스스로 맡아키워 조국앞에 내세운 형제산구역 제산소학교 교원 함옥숙을 비롯하여 수많은 로동자, 농민, 교원, 과학자, 체육인들이 있다.

진정 사회의 반수를 이루는 녀성들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인간의 존엄과 참다운 삶을 안겨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힘과 지혜, 재능을 다 바쳐가는 공화국의 녀성들이야말로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을 받아 아름답게 활짝 피여나는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이며 반녀성적인 정책에 의해 녀성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회적풍조, 사회적악풍이 더욱더 만연되고있으며 이러한 속에 헤아릴수 없는 많은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력대로 이어져오는 녀성차별, 녀성천시정책에 의해 《남녀임금격차 1위》, 《녀성임금수준 세계최하위》, 《녀성실업률 최고, 취업률 최저》를 기록하고있고 녀성들이 아이를 낳아키우는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실책으로 되고있다. 사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곧 실업》, 《임신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 않는것이 편안하다.》는 말이 류행어처럼 나도는 판이니 남조선의 출산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가 하면 녀성들은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이 되고있다.

하기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녀성의 지위에 관한 평가자료에서 남조선이 조사대상 29개 나라와 지역들가운데서 최악이며 특히 남녀소득격차는 31.1%로 가장 마지막이고 녀성들이 로동에 참가하는 비률도 28위에 불과하다, 이외 주요지표들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조선의 녀성들은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여 비참하게 시들어가고있다.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화원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공화국의 녀성들과 녀성천시, 녀성차별의 사회적풍조속에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남조선녀성들의 판이한 모습은 어느곳이 참다운 인민의 세상이고 어느곳이 인간생지옥, 인권의 무덤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강철

녀성존중, 녀성중시의 화원에서 행복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의 녀성들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자체의 힘으로 기계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체40(1951)년 9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산업성(당시)에서 작성한 지하기계공장들의 설계안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지하공장건설을 처음 하는 조건에서 공사과정에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는데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여도 만년대계로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월중순 그 일군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기계제작공업발전의 절박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자면 자체의 힘으로 기계공장을 건설하여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것이 부족한 전시조건에서 우리자체의 힘으로 기계공장을 건설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기계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전시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대로 보장할수 없을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조선에서 기계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속품이나 깎으면서 기계를 사다 쓰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우리 나라 현실에서 기계를 만드는것은 시기상조이니 부속품이나 깎아 팔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기계를 사다 쓰자는 일부의 불건전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제발로 걸어나가려고 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요분자, 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까밝히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립장을 밝히시였다.

《산업성 일군들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누가 도와주든말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기계공장건설을 내밀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한 가르치심은 전쟁으로 일시 시련을 겪고있는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대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기도와 여기에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된서리를 안겨준 자주의 선언이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기계제작기지창설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에 의해 주체40(1951)년 11월 15일 내각결정 제363호 《공작기계, 자동차부속품제작 및 방직공장신설에 관하여》가 채택되였으며 12월에는 기계공업의 모체공장들의 건설을 알리는 첫 발파가 울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울려주신 이 발파소리는 기계제작공업의 창설로 적들의 총포성을 단호히 짓눌러버리고 강철기둥으로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하는 장엄한 승리의 선언과도 같이 전선으로 힘있게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인의 믿음속에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작가 (1)

사람에게서 어떻게 사는것이 값높은 삶인가.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긴 생이 아름답고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참다운 삶이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작가 조령출의 삶도 그러하다고 할수 있다.

* *

조 령 출 선 생

작가 조령출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인 1913년에 태여났다.

그의 부친은 마을에서 자그마한 약방을 차려놓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이였다.

조령출은 4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1921년부터 1년반동안 한문서당과 다름없는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말았다. 불행하게도 부친을 잃었던것이다.

얼마후에는 어머니와도 생리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떻게 하나 아들을 공부시키려는 극진한 모성애는 어머니로 하여금 어린 자식을 남의 집에 양자로 들여보내는 모진 결단을 내리게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유년시절에 작가가 겪어야 했던 피할수 없는 숙명이였다.

불우한 그 시절에 우리 겨레가 강요당하는 민족적멸시와 울분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자기의 가슴에서 고패치는 심정을 그대로 담을수 있는 문학수업에 뜻을 두게 되였다.

고학의 어려운 길을 걸어온 조령출은 그후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일본 와세다대학 프랑스어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재학당시 그는 쉐익스피어와 같은 유명한 극작가가 되기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그 시대에 그의 이러한 희망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재능있는 조령출이였지만 그는 불우한 문인이였다. 인재도 때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나라잃은 문필가로서 그의 인생은 빛이 없었다.

작가는 창작의 첫걸음부터 시련의 광풍을 힘들게 헤쳐나가야 하였다.

1933년 그의 처녀작 《서울노래》가 신춘문예 1등당선작품으로 발표되였다.

가사는 비록 지금은 망국의 울분으로 몸부림치는 삼천리강산이지만 잎이 트고 꽃이 피는 새봄은 기어이 오고야말리라는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가사가 음판으로 나오자 일제는 불온하다고 하면서 금곡령을 내리고 모두 압수하여 깨버리는 망동을 부리였다. 작가는 너무 분통해서 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조령출은 그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사창작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작가는 침투력이 강한 가요에 나라잃은 설음에 가슴을 치는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아보려는 욕망으로 모대기였다.

조령출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어떻게 담겠는가 하는 창작실천상의 문제에서 중요한 원천을 민요의 보물고에서 찾고 민요적인 바탕을 살려 민족적정서를 구현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저 애쓴 측면에서 다른 시인들이 따를수 없는 특출한 점이였다.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환경속에서도 명승지들에 대한 노래를 지어 조선이야말로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긍지높이 웨쳤으며 조선민족의 넋과 순결성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노래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많은 작품들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처지, 빼앗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노예의 쇠사슬을 하루빨리 끊어버리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려는 희망과 락관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결국 작가가 쓴 수많은 신민요가사들과 대중가요가사들은 겨레의 울분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반항의 감정이 짙은 서정으로 충만되여있다.

민족수난기 그의 가사들은 그대로 그의 인생이였고 그의 아픔이였으며 그의 설음이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총련이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각종 문예소조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고있다.

뜨거운 조국애가 맥박치는 공연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순회공연 《바람이 되여》가 동포들의 절찬을 받으며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가극단은 니시도쬬에서 성대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극장으로 모여왔다.

공연에 앞서 총련 니시도쬬조선제1초중급학교 민족기악부의 기악중주 《행복의 니나니난노》와 니시도쬬조선제2초중급학교 무용부의 군무 《부채춤》이 무대에 펼쳐졌다. 관람자들은 어린 재간둥이들의 뛰여난 예술적기량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뒤이어 가극단공연이 진행되였다. 기악중주 《바람이 되여》, 혼성중창 《번영하라 조국이여》, 가야금과 저대독주 《미래를 향하여》, 무용 《모란봉의 봄》, 《강성부흥아리랑》 등 14개 종목이 무대에 올랐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친 공연은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동포들은 가극단의 공연을 보면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었다. 투쟁기세가 더욱 높아졌고 동포사회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

교또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족기악중주단 《향기》는 규모가 크지 않고 력사도 그리 오래지 않으나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이다. 중주단성원모두가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어머니조국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선물악기로 기량을 익힌 3세, 4세동포들이다.

얼마전 결성 10돐을 맞으며 중주단은 연주회를 열었다. 극장은 빈자리가 없이 꽉 찼다. 공연이 시작되자 소해금과 가야금, 장새납 등 다양한 민족악기들이 아름다운 선률을 뽑아냈다.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연주하는 중주단 성원들의 우아한 모습에서 누구나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내용도 훌륭하고 연주수준도 상당하지만 연주가들이 모두 조선학교졸업생들로서 민족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라고 말하였다.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우뢰같은 박수갈채를 받는 중주단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음악예술을 꽃피워간다는 긍지와 영예가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무용 《강성부흥아리랑》

외곡될수 없는 력사, 차별정책철회를 요구하여

일본이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얼마전 도쬬에서 100년전 간또대지진당시 조선인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긴급집회가 열리였다.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학살희생자의 추도와 책임추궁의 행동》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긴급집회에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재일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간또대지진당시의 조선인학살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한창 벌리던 때 정부와 군대, 경찰, 자경단에 의한 대량학살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때로부터 10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그에 대한 진상규명도 사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조선인학살의 력사를 똑똑히 기억하여야 하며 지금도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 일본의 조선인차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송지화 류학동중앙 국제부장은 지난 5월 류학동 동맹원들과 일본인대학생들로 《조선인학살의 력사를 기억하며 조선인차별을 반대하는 일대행동 실행위원회》가 조직되고 새세대들이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식민주의와 조선인 차별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정영수 조선대학교 강사가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조선인학살의 력사적 배경과 오늘까지 계속되고있는 《학살체험자》(학살을 목격한 당사자나 그 유가족들)들의 쓰라린 기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본이 주도한 조선인학살이 어떻게 은폐되고 정당화되여왔는가에 대해 까밝히였다. 그는 《간또대지진당시의 조선인학살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자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최근년간 일본 각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조선인차별행위들을 실례를 들어 언급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일본시민들도 일본사회가 식민주의와 타민족멸시를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합쳐나갈것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전후 남조선을 군사적부속물로 철저히 예속시킨 미국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저들의 비참한 패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어리석게도 반공화국전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였다.

1950년대 미국이 감행한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책동과 반공화국군사적 도발행위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영구강점하기 위해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8군사령부의 1군단을 남조선에 계속 눌러앉아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1957년에 새로 조작된 《태평양통합군사령부》에 미8군사령부를 직속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켰다.

이와 함께 남조선강점 미7사단과 1기갑사단을 전술핵무장을 갖춘 사단으로 개편하고 각종 원자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저들의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괴뢰군의 지휘체계와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놀음을 벌렸다.

미국에 의해 남조선괴뢰군에 련합참모회의와 그 상설기구인 련합참모본부 그리고 제1, 2군 사령부, 남조선교육총본부가 조직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괴뢰군을 20개 사단으로부터 35~40개 사단으로 늘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먼저 1개 해병대사단과 10개 예비병사단, 새 전투비행단을 편성하였다.

또한 남조선괴뢰군을 105㎜반땅크포, 203㎜곡사포 등 각종 신형무기들로 장비시키고 수십개의 비행장들과 해군기지들을 보수확장하거나 신설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어기면서 공화국지역에 총포사격을 하고 군용비행기, 함선, 무장인원, 간첩암해분자들을 그칠새없이 들이밀었다.

또한 조선정전협정을 파괴하기 위해 중립국시찰소조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으며 반공화국전쟁연습을 매일같이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렇게 전후 1950년대 미국은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본사기자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범죄적인 망동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방대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붓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섬나라것들이 핵오염수바다방출이 실행되는 경우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57일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수역으로, 10년후에는 전 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

조선동해와 태평양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해양환경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여 인류는 핵참화의 위험속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것들은 한사코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려 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섬나라것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은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여 검토했다.》느니,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느니 하는 당치않은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섬나라족속들의 반인륜적망동을 적극 부채질해주고있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회세의 사대매국노, 천하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인류에게 위험천만한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날뛰는 일본과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자멸을 재촉하는자들의 부질없는 객기

지난달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데 대하여 국방상담화로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전례없이 강력한 위협》이니 뭐니 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공화국을 걸고들다 못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떠들면서 대결광기를 부려댔다.

상전이 던져준 빈껍데기에 불과한 《워싱톤선언》과 파시적인 전략자산전개에 잔뜩 기고만장하여 설쳐대는 버마재비 같은것들의 자멸적객기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강화》와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문서화한것이다.

미국이 윤석열역도를 끌어다놓고 《확장억제강화》이니, 《전략자산의 항시적전개》이니 하는것을 쪼아박은 《워싱톤선언》을 조작한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그것은 체질적이며 병적인 대조선압살야망의 발로인 동시에 허세성객기로 저들의 체면을 부지하기 위한것이다. 또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혼맹이가 빠져버린 윤석열역적패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저들의 반공화국핵전쟁의 하수인으로, 세계제패야망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흉책에 따른것이다.

하기에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워싱톤선언〉이란 〈확장억제〉의 구실밑에 조선반도로 핵전략자산을 집중하고 전쟁연습구실을 만들기 위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고 윤석열 〈정부〉를 달래는 〈빈껍데기선언〉》이라고 평하고있다.

사실 미국이 파시적인 전략자산전개와 핵전쟁연습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저들의 지위를 부지하려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그들자체가 날로 급부상하는 공화국의 절대적 힘에 전률하여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해 생각하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의 하수인, 대포밥들의 운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력대로 미국은 자기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주구들, 하수인들이 죽든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을 믿고 제 죽을줄도 모르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늙어빠져 무덤이 코앞인 상전에게 매달려 비루한 명줄을 부지하려고 바둥대는 특등주구의 어리석고 가소로운 광태가 아닐수 없다.

아직까지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설쳐대는 역적패당이 실로 가긍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역적패당의 볼썽사나운 반공화국대결망동을 비난하며 《북을 자극하는 경우 끔찍한 사태가 도래할것이다.》라고 경고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김 정 혁

대결미치광이들의 어리석은 광대극

윤석열역적패당이 정전협정체결 70년을 계기로 각종 반공화국대결행사판들을 벌려놓아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역적패당은 정전협정체결 70년을 계기로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끌어들여 《기념식》을 한다, 훈패를 달아준다 하며 해괴하게 놀아댔다.

또한 미핵추진잠수함을 끌어들여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렸다.

그야말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는 산송장들의 어리석은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인류와 력사가 엄정하게 평가했듯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즐거운 려행》으로 묘사했던 조선전쟁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얻어맞고 녹아났는가 하는것은 몇가지 실례만 들어도 잘 알수 있다.

저들의 그림자만 보아도 줄행랑을 놓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투입한 《스미스특공대》는 오산계선에서 불과 2시간만에 괴멸되였다. 《상승사단》이라던 미군 제24사단은 대전에서 완전포위섬멸되고 사단장 띤은 인민군병사에게 포로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던 미국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도 조선인민군 해군의 어뢰정들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였고 《하늘의 제왕》이라며 내세웠던 《B-29》도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였다.

조선전쟁은 《하나의 축복》이라면서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미국은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 수치를 당해야만 하였다. 미국의 대포밥이 되여 조선전쟁의 돌격대로 나섰던 남조선괴뢰들이 당한 비참한 참패는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상대에 대한 잘못한 전쟁》,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명장들이 제일 많이 죽고 철직된 전쟁》, 이것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대참패한 미국이 지른 비명이였다.

그럼에도 역적패당은 지난 조선전쟁에 내몰렸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제명을 다 산 고용병늙다리들까지 끌어들여 각종 광대극들을 벌려놓고 미국상전과 저들이 당한 수치와 대참패를 그 무슨 《승전》으로 분칠하는 얼빠진 추태를 벌려놓은것이다. 세상에 이런 정신병자들, 인간추물들이 어디에 또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들이 저들의 추태를 어떻게 평하겠는지 개의치 않고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주절대고 망측한줄도 모르고 설쳐대는 역적패당이야말로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천하역적, 희대의 인간쓰레기들이다. 침략과 전쟁을 찬미하고 합리화하는것은 곧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침략과 살륙, 수치와 패배로 얼룩진 저들의 죄많은 과거를 미화분식하고 반공화국전쟁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세인을 아연케 하는 역겨운 광대극들을 벌려놓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의와 진실을 모독하고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것을 생리로 하는자들, 전쟁과 대결에서 살길을 찾는자들의 본색과 정체만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전쟁위기 높이는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전쟁위험 몰아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웨치며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파쑈독재로는 정의와 진실을 억누를수 없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저들의 파쑈폭압통치에 반기를 드는 야당들과 로동운동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을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전체주의세력》, 《부패한 집단》, 《가짜뉴스와 괴담》을 류포시키는 주범으로 몰아대면서 탄압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저들의 무지무능과 반역정치로 초래된 통치위기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야당들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에게 넘겨씌우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을 약화시키며 집권안정을 이루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의 사대매국과 검찰파쑈통치, 친재벌적이며 반로동적, 반인민적정책, 극악한 반공화국전쟁대결정책에 의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사회적 혼란과 파국은 극도로 가중되고있다. 최근에만 해도 물가와 공공료금이 걷잡을수 없이 뛰여올라 남조선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는 속에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사상자와 리재민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주민들이 당하는 심각한 재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해외를 싸다니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는데 열을 올리였다. 또한 남조선의 전 지역이 폭우피해로 아수라장이 되고있는 속에 역도의 녀편네가 해외에서 명품상점을 들락거린 사실이 폭로되고 역도의 처가족속들의 권력형부정부패의혹까지 터져나와 내외를 경악케 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반인민적행위는 남조선 각계의 반윤석열, 반《정부》기운을 더욱 고조시켰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깡패, 검찰독재 윤석열 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국민의 힘〉 해체하라!》, 《부패비리 사대매국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심이다.

남조선 각계의 거세찬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으로 막다른 통치위기에 직면하자 역도와 그 패당은 민주개혁세력을 《반국가세력》, 《저들의 리권만 생각하는 부패한 집단》, 《가짜뉴스와 괴담》을 내돌리는 주범으로 몰아대면서 윤석열《정권》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 민주개혁세력을 탄압말살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정의를 짓밟고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극악한 민주, 인권의 교살자, 희세의 파쑈광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윤석열〈정권〉이야말로 주민들을 저해하는 반국가세력이다》, 《못살겠다, 윤석열퇴진에 로동자, 농민, 시민의 살길이 있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정부》, 반윤석열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력사는 파쑈독재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운명도 결코 달리 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최근 윤석열역도가 그 무슨 《공직기강확립》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역도는 《국정운영》방향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자들은 엄단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가차없이 칼질을 해대고있다.

지난 5월 자기의 《탈원전정책》폐기공약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교체한것을 비롯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판료들을 현직에서 쫓아낸데 이어 6월에는 11개 부서의 차관 12명을, 7월에는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일부 주요인물들을 교체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역도의 이러한 《공직기강확립》놀음은 기강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남아있는 반윤석열세력을 모두 제거해버려 자기의 독선과 전횡,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로골적인 정치탄압이다.

실제로 역도의 《공직기강확립》놀음에 의해 쫓겨난자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 출신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있던 자리들에는 역도에게 아부굴종하는자들이 올라앉았다.

역도는 자기의 대내외정책 추진에 장애로 되는자들을 가차없이 떼버리고 행정부의 고위직에 심복들을 올려앉히는 한편 《대통령실》을 내세워 행정부것들을 감독통제하고 공직감찰력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있다.

그로 하여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몰라 극도로 불안해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공직기강확립》놀음에 대해 공무원들의 목줄틀어쥐기, 공직사회길들이기, 측근올려앉히기, 공직사회압박전략으로 비난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인간추물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역도는 이미 남조선민심의 버림을 받았다. 남조선 각계가 《윤석열퇴진!》, 《윤석열〈정권〉을 갈아엎자!》는 구호를 들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역도에게 남은것이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한 일 혁

폭력이 란무하는 교정

《잔혹하다. 고등학생들이라는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것은 례사로운 일이고 마치 고문이라도 하듯 뜨겁게 달궈진 고대(머리모양을 낼 때 쓰는 전기제품)와 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살갗을 문드러지게 한다. 피해자는 온몸에 화상자국과 멍이 남았고 나이들어도 그 자국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은건 마음에 새겨진 상처이다. …》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한 언론이 학교폭력문제를 소재로 하여 만든 TV련속극에 대하여 평한 글이다.

문제는 이 TV련속극의 소재가 작가의 머리속에서 고안된 창작적허구가 아니라 지난 2006년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청주의 어느한 녀자중학교에서 벌어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한것이라는데 있다.

일명 《고대사건》으로 알려진 이 학교폭력사건은 여러명의 녀학생들이 20일에 걸쳐 한 녀학생을 흉기로 폭행하여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한 범죄사건이다.

남조선에서는 교정에서 공공연히 감행되는 이러한 폭력행위로 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식발표한데 의하더라도 2020년에 8 300여건이였던 학교폭력사건은 2021년에는 1만 5 600여건으로 늘어났고 2022년 상반년에는 9 700건에 달하였다.

더욱 심각한것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빈곤층자녀들이고 가해자들은 례외없이 특권층이나 대기업가들의 자식들이라는데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비단 학생들사이에서만 발생하는것이 아니다.

얼마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학생이 자기를 배워주는 교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상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수업도중 교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원이 임명된지 2년도 안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학생들이 교원들을 불손하게 대하다 못해 학부형과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은 최근 5년간 1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교사를 무시하는 일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이것은 교권을 마구 침해당하고도 항변 한마디 할수 없는 남조선교원들의 울부짖음이다.

학생들이 자기를 배워주는 교원들을 존경할 대신 돈과 권세있는 부모들을 등대고 교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이런 교정에서 어떻게 고상한 도덕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자라날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신성한 교정이 부패와 폭력이 란무하는 범죄의 서식장으로 전변된것은 위정자들의 반인민적정치, 부패정치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역도가 추진하고있는 《교육개혁》놀음도 교육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만을 초래하고 《등록금대란》을 불러오는 개혁 아닌 개악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교육개혁》놀음에 대해 《학생들을 무차별적인 경쟁에로 내몰아 자살자들만 늘어나게 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드는 개악놀음》이라고 비난배격하고있다.

윤석열역도와 같은 시정배들이 판을 치고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학교폭력은 언제 가도 근절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 광 혁

허울은 벗겨졌다 ≪공정과 상식≫의

얼마전 남조선의 《법원》이 은행중명서위조협의로 기소된 윤석열역도의 장모년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재판정에서 즉시 《법정구속》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기세등등하여 재판정에 나섰던 윤석열역도의 장모년은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질겁하여 무슨 말인지 리해가 잘 안된다느니, 억울하다느니,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느니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졸도하여 들리워나갔으며 변호인단것들은 뻐꾹소리 한마디 못하고 황황히 사라졌다고 한다.

윤석열역도의 장모년은 일찌기 술과 도박, 매춘,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은것으로 하여 6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1년 5월에는 불법료양병원개설협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온 상습적인 전과자이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건은 그가 저지른 죄악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윤석열이 장모에 대해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것이 없다.》고 한것은 거짓말이라는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 립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특히 윤석열역도의 녀편네 김건희와 장모년이 주가조작의혹과 부동산투기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로선변경의혹 등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에 련루되여있는데 대해 크게 여론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의 처가집은 처음이다, 윤석열의 처가집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로부터 전형적인 권력형부정부패까지 총망라된 종합범죄집단이라고 단죄하고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특권독점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의 처가집이다, 장모의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김건희일가의 《국정》롱단의혹을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떠들어댔지만 집권하여 오늘까지 170여가지나 되는 제 가족의 부정부패협의는 모두 덮어버리고 대부분 협의가 없다고 하였다.

《법치》와 《공정》, 《청렴》의 허울뒤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윤석열역도와 그 일가족속들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야 할 범죄왕초들이다.

이런자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썩고 병든 세상이다.

본사기자 박 진 흥

한여름의 더위를 가셔주는 물의 궁전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각지의 물놀이장과 해수욕장들이다.

평양의 문수지구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매일같이 흥성이고있다.

황홀한 물의 세계에서 달아오른 몸을 한껏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이곳 문수물놀이장에서 제일 이채를 띠는것은 급강하물미끄럼대이다.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에서 거의 수직으로 쏜살같이 미끄러지는 그 순간의 쾌감을 맛보고저 젊은이들이 제일먼저 나선다. 물미끄럼대를 타고 미끄러져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칠색무지개를 타고 내리는 선남, 선녀들을 보는것같다.

한쪽에서는 술한 사람들이 조약대에서 물속으로 뛰여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기쁨의 탄성을 련속 터친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동물공원에서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즐겁고 유쾌하게 좋아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저도 모르게 동심세계에로 이끌어간다.

곳곳에 꾸려진 휴식터들에서는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한편 배구장에서는 물놀이장에서 구면친구가 된 사람들이 배구경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배구경기도 볼만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것은 대담성과 용감성을 보여주는 벼랑타기이다. 가파로운 벼랑을 오르던 처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하겠는지 포기하려다가 옆에서 기세좋게 오르는 사람을 보고는 부끄러운지 다시 톱아오른다.

누가 더 오래 서있는가 경쟁이나 하듯 쉬임없이 쾅쾅 쏟아져내리는 덕수를 맞으며 서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한시바삐 그속으로 뛰여들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백사장인양 기슭을 치며 끊임없이 밀려드는 푸른 파도에 몸을 싣고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 역시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지게 한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곳 물놀이장에서는 사람들이 더위를 모르고 기쁨과 랑만의 웃음을 한껏 터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민
사진 본사기자 심용석

맛좋고 질좋은 젖제품을 더 많이 생산

공화국의 젖제품생산 및 련관단위들에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젖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올해에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량강도와 개성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염소와 젖소목장건설 및 능력확장사업이 통이 크게 전개되였다.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흥상젖소목장과 인흥젖소목장을 비롯하여 보리싹재배장과 뽈물등에서식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먹이원가를 낮추고 젖제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여나가는 축산단위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한편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도 시안의 모든 축산단위들에 우량한 염소에 의한 잡종화생산체계를 갖추고 젖생산량을 2배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염소방목에 의한 풀판적지들을 선정하고 방목지면적을 전망성있게 넓히고있다.

평양시에서는 400여동의 염소우리와 염소종축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으며 구빈축산농장을 비롯한 축산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염소의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젖가루생산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젖가루생산량을 1.5배로 장성시켰다.

또한 평양시탁아소유치원 물자공급관리소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들은 물론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우유콩급을 책임적으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지금 각지의 젖제품생산단위들에서는 젖제품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생태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넣어

평양시안의 원림부문에서 지피식물들을 원림록화조성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평양잔디연구소에서는 관상적가치가 높으면서도 환경보호에 좋은 여러 품종의 지피식물들을 육종도입하기 위해 분발해나섰다.

여러곳에서 원림록화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것과 동시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있으며 비탈면이나 도로주변을 비롯한 생땅이 드러난 부분에는 잔디플록쓰와 같은 여러가지 지피식물을 적극적으로 심고있다.

지피식물을 널리 퍼치자면 빨리 번식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땅을 덮는 능력이 강한 지피식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는 이곳 연구소에서는 영양제와 번식방법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토양조건과 기후조건에서 빨리 자라는 재배방법을 찾아내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다.

락랑구역원림사업소에서도 잔디플록쓰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피식물들을 많이 심는것이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생태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가고있다.

이곳에서는 구역안의 생땅이 드러난 곳을 충분히 료해하고 이런 곳에 잔디플록쓰를 비롯한 지피식물들을 많이 심고있다.

또한 지피식물을 퍼친데 따라 뇨소비료를 배합한 영양액을 주고 수분보충도 해주면서 훌륭한 생육을 보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사 화

기와굽기풍습 (2)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집저집 찾아다니며 밥을 빌다가 좀더 커서는 품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였다.

그후 발길닿는대로 함흥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나무장사를 하였는데 바로 향교마을 백부자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처녀와 알게 되였고 그와 정을 나누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자는 고된 일로 잔뼈가 굳어 그 어떤 일이든 막힘없는 아버지를 탐내였다.

백부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5년을 일해주면 기와집도 한채 마련해주고 종살이를 면하게 해줄테니 그 처녀와 살라고 하였다.

그 처녀와 함께 살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랴.

아버지는 너무 기뻐 백부자의 요구를 달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지는 그때 아버지로서는 생각도 못하였다.

백부자네 집에서의 고역살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소여물을 끓이는 일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는데 혼자서 여섯마지기의 밭을 맡아 농사를 지으면서 또 백부자네 집의 땔감을 몽땅 감당해야 하였다.

어느 하루도 지어는 설날에조차 아버지는 쉴수 없었다.

그렇게 다섯해를 죽도록 일해주었으나 백부자는 수판을 튕기더니 다섯해기간 번 돈은 얼마인데 그동안 먹고 입은게 얼마이고 종살이처녀가 빚진 돈이 아직 얼마가 남았으니 몇해 더 일해야겠다고 을러멨다.

억울하였지만 아버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또 3년을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가 몇해 더 일해준 대가로 백부자가 내준것은 기와집은커녕 낡은 헛간을 헐어낸 재목 아닌 재목뿐이였다.

백부자는 또다시 수판을 튕기고나서 아버지가 번 돈으로는 처녀가 진 빚돈도 안된다고 그나마 재목을 받은게 과남한줄 알라고 호통쳤다.

아버지는 울분을 참을수밖에 없었다. 그리도 바라던 처녀와 함께 살수 있게 되여서보다 골병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운신할수 없는 처녀를 놓고 백부자와 시비를 가를수 없어서였다.

백부자네 집을 등지고 나온 아버지는 향교마을의 한쪽가녁에 집터를 잡았다. 동네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재목으로 부엌과 단칸방의 이집을 지어 새살림을 시작하게 하였다.

지옥같은 백부자네 집에서 고역살이에 골병이 든 어머니는 홍달을 낳은지 몇해만에 한많은 세상을 원망하며 숨을 거두었다.

홍달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진 빚때문에 백부자집에서 억울하게 고역살이를 했다고, 기와집만 아니였어도 골병들어 잘못되지는 않았을것이라는 말을 남기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홍달이는 홀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못 하나 박을 땅쪼각도 없는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그 한생각으로 닥치는대로 품을 팔았다.

어데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는 홍달이 여덟살 나던 해부터 갈자리를 엮어 팔기 시작했다.

홍달이도 아버지를 도와 갈자리를 엮었다.

점차 홍달이네 갈자리는 질이 좋기로 알려져서 죽물신세를 면할수 있었다.

그때는 벌써 아버지의 머리에 흰서리가 하얗게 내리였다.

아버지는 백부자네 집의 고역살이로 골병들어 죽은 어머니를 가슴아프게 추억하면서 기와집이란 말을 자주 뇌이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지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백부자 그놈은 기와집을 미끼로 해서 여러해동안 날 마소처럼 부렸어. 네 어미도 골병이 들어 더는 쓸모가 없다고 여겨서야 내보내고. 아, 기와집때문에 백부자한테 속은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라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군 하였다.

오죽 기와집이 가슴에 맺혔으면 백부자 같은 량반부자들이 배아파하게 기와집을 지으라는 유언을 남겼겠는가.

아마 아버지는 10년만 젊었더라면 기와집을 짓는 일을 벌려놓았을것이다.

기둥이며 들보들이 다 고삭고 썩어버린 이 집의 곁에다 번듯한 기와집을 일떠세우는것은 아버지의 원한서린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이자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집이야말로 한당대만이 아닌 자손대대로 물려지는 재산이니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집을 마련하려 전심하는것이다.

안해도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리자고 집짓는 일에 발벗고나섰다.

허나 막상 집짓는 일을 벌려놓으니 고양이가 소대가리를 맡은듯 너무도 아름찼다.

처음에 홍달은 소뿔은 단김에 뽑으랬다고 이웃집의 소달구지를 빌려가지고 동홍산너머의 오봉산으로 들어갔다.

오봉산에는 집기둥으로 딱 좋은 아름드리나무들이 울창했다.

혼자 부지런히 집기둥할 목재 한달구지를 해오는데 보름나마 걸렸다.

그러니 집을 한채 짓는데 소용되는 목재를 해오는데만도 숱한 품을 바쳐야 했다.

그보다 더 골치거리는 기와였다.

재목감은 그래도 제힘으로 찍어오면 되지만 기와만은 돈으로 사야 했다.

지붕을 씌우자면 무려 몇천장의 기와가 드는데 그걸 다 사자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했다.

기와집을 짓는다며 달라붙은지 몇달만에 홍달은 두손을 들고 나앉았다.

생활이 넉넉치 못한 처지에서 기와집을 지으려다가는 굶어죽을수 있었다.

아, 이래서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거로구나.

기와집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였다. …

잠자리에 누운 홍달이 몸을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하며 괴로와하는데 안해가 근심조로 물었다.

《복근이 아버지! 아직도 자지 않수?》

《아, 왜 그런지 잠이 통 오질 않는구만.》

《하긴 그렇겠지요. 이 집이 언제 무너질줄도 모르는데 속수무책이니…》

홍달은 그 말에 맥이 빠져 구들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

봄이 가고 여름도 지나 추석날이 왔다.

남들축에 빠질세라 성의껏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버지의 묘에 이른 홍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아버지의 산소를 마주하고보니 기와집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어졌다.

여름철 건강관리상식

날씨가 매우 무덥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식초를 섭취하면 위산의 농도를 높여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도모하고 입맛을 돋굴수 있다.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먹으면 영양분과 함께 수분도 보충할수 있어 일거량득으로 된다. 도마도국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더운 차

여름철에는 음료를 떼여놓을수 없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골라야 할것은 찬 음료나 맥주, 커피가 아니라 일반적인 더운 차이다. 차잎에는 칼리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수영

수영은 손과 발, 허리, 배를 단련시킬뿐 아니라 심장, 뇌, 폐, 간 등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혈관에 매우 유익한것으로 하여 《혈관체조》라고도 불리운다.

—부채

부채를 흔드는것은 일종의 운동으로서 팔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된다. 이와 함께 부채로 얻어지는 바람은 인체에 제일 적합한 바람이다.

—규칙적인 기상 및 취침시간

여름철에는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찌기 일어나는것이 리상적이다. 여름철에 제일 적합한 취침시간은 22시 30분~23시 30분, 기상시간은 5시 30분~6시 30분사이이다. 점심시간전이나 식사후에 쪽잠을 잠으로써 부족되는 잠을 보충해야 한다.

본사기자

ㄱ-1618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